

예상치 부합한 CPI에 위험 선호 심리 부각, 성장주 강세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물가 우려 완화, 기업 호실적에 성장주 중심 상승세

- 미 증시는 DOW -0.04%, S&P500 +0.26%, NASDAQ +0.54% 혼조. 기술주, 유틸리티 강세, 소재, 임의소비재, 통신서비스 약세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5%. 전일 장마감후 실적 발표한 코어위브(+19.3%), 슈마컴(+19.0%)에 이어 네비우스(+34.1%)도 호실적 이어가며 강한 AI 클라우드 수요 확인, 반도체 투자심리 개선
- JP 모건은 메모리 공급부족이 GPU→CPU 로 확산, 칩플레이션이 최소 2 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 모건스탠리는 칩플레이션 국면에서 서버·스토리지·PC 등 H/W 수혜 전망

시장 예상치 부합한 물가에 9 월 금리인상 기대 후퇴

- 7 월 CPI YoY +3.4% 전월비 하락, 컨센 부합. MoM +0.1% 전월비 상승, 컨센 부합. MoM 기준 에너지 -5.7%, 식품 +0.1%, 주거비 +0.1%. 7 월 근원 CPI YoY 2.5% 전월비 하락, MoM +0.2% 전월비 상승, 모두 컨센 부합
- 골드만삭스는 7 월 CPI 지표가 연준이 다음달 금리 인상을 주장할 논리를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9 월 FOMC 전까지 추가 발표될 물가지표 발표도 지켜보아야한다고 코멘트

원유수요 전망 하향 및 재고 증가에 국제유가 숨고르기

- 국제유가 하락 WTI \$89.3(-3.1%), Brent \$96.8(-3.9%). OPEC 이 올해 세계 원유수요 전망 58 만 bpd 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미 원유재고도 예상외로 증가하며 2023 년 1 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증가폭 보인 영향
- 한편, 파키스탄은 미-이란 60 일 휴전 MOU 만료시한 임박에 연장 가능한단 입장. 반면 이란 측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	내용
SPCX	스페이스X	+9.7%	일론 머스크 CEO는 스타링크 소비자 가입자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하고 36개 이동통신사 파트너십을 통해 167개 시장에서 월간 모바일 이용자 2,2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발표. 장중 주가는 공모가(\$135)를 상회하며 강세. 또한 자회사 스페이스XAI의 성능이 개선된 신규 LLM 'Grok 4.6' 출시 소식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GOOG	알파벳	-0.2%	딥마인드 내부 조직 개편 진행중인 가운데 세르게이 브린 공동창업자가 복귀, 핵심 인력들에게 제미니 AI 모델의 AI 리더십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핵심 주문. 한편 아마존AWS 데이브 레비 부사장 영입
NBIS	네비우스	+34.1%	실적발표.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해 주가 급등. 매출 +454%YoY 기록, 조정 EBITDA 흑자 전환 소식에 주가 급등. 한편 이번 실적 발표는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베팅 직후 발표
CSCO	시스코 시스템즈	+2.9%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외 주가 -4%대 하락 중.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주가 약세. 매출은 +18%YoY 증가. 사측은 강력한 매출 가이던스 제시의 배경으로 전방위적이고 사상 최대 수준의 수요를 강조. 이번 분기에만 하이퍼스케일러를 대상으로 \$4B 규모의 수주를 확보하는 등 AI 관련 수요에서 '유의미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선반영된 시장의 높은 기대치 충족에는 실패
COHR	코히어런트	+8.2%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외 주가 -4%대 하락 중.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주가 약세. 매출은 +34%YoY 증가, CEO는 이례적인 수준의 고객 수요를 언급. 다만 지난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하며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된 가운데, 전일 경쟁사 루멘텀의 호실적 발표 이후 광학 네트워킹 장비 업체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진 데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WEN	웬디스	+14.7%	넬슨 펠츠의 트라이언 펀드 매니지먼트가 웬디스를 비상장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수 거래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주가 급등